

생태발자국 비교

우리나라 생태발자국

우리의 생태발자국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느 정도의 생태발자국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의 생태발자국>

조사년도	생태발자국 지수	필요한 지구의 개수
2003년	4.05ha	2.26개
2005년	3.56ha	2.08개

(연구기관: 녹색연합, 한화환경연구소 공동연구)

2003년과 2005년의 조사에 비추어 보면 소폭 크기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활방식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지구가 필요하여 앞으로도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내 지자체에서도 생태발자국을 조사하는 등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생태발자국 지수를 조사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발걸음은 2008년 12월에 수원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수원 시민의 '생태발자국 지수'를 산정한 결과, 세계 사람들이 수원 시민처럼 생활할 경우 지구 1.49개가 있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는 수원시의 의뢰로 실시한 '수원시 생태발자국 산정 연구 사업' 보고회에서 2006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수원 시민 1인당 생태발자국 지수가 3.34gha로 나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수원 시민과 유사한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생태발자국 면적은 우리나라 면적의 6.17배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알아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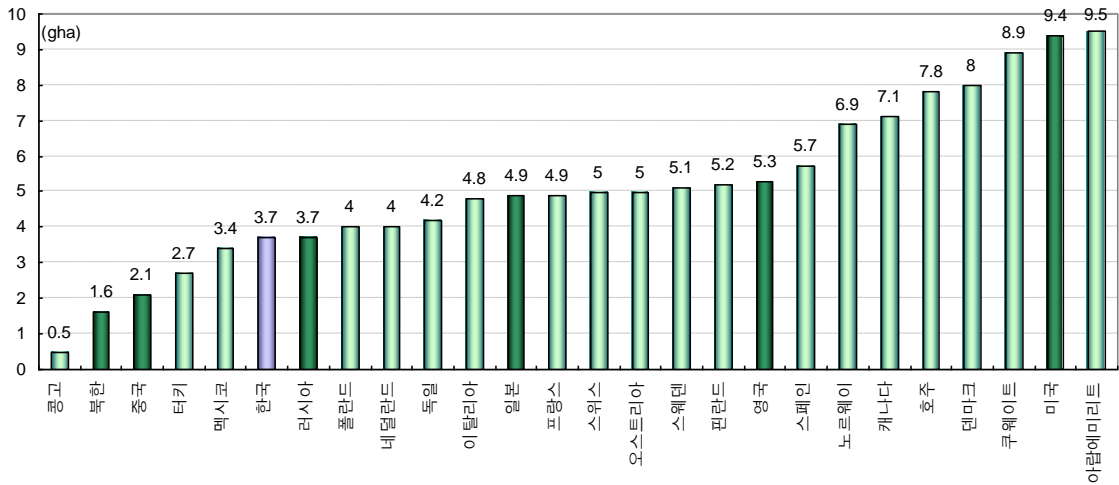
gha(글로벌헥타르) : 자국의 각 지역은 생산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옥한 밭과 아무도 가꾸지 않은 들판은 같은 면적이라도 농산물 수확량이 다를 것입니다. 생태발자국도 사는 지역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지 않으면 나라별, 지역별 비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적 차이를 반영해 표준화된 생물학적 수용력의 단위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gha입니다. 따라서 gha로 표시된 각국의 생태발자국 면적은 동일한 조건과 기준의 값으로 서로 비교가능한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생태발자국

선진국들이 자원의 과다소비로 높은 생태발자국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Living Planet Report 2008(살아있는 지구 보고서 2008년)에 의하면 2005년 기준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태발자국 크기는 세계 최소인 콩고에 비해서 7배 이상 컸습니다. 하지만 OECD 회원국의 평균값인 5.3gha(룩셈부르크와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28개 회원국의 평균)에 비해서는 낮아 OECD 국가 중 5위를 기록하였고, 미국이 9.4gha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산업화에 앞선 나라들이 화석에너지도 많이 쓰고 있을 뿐 아니라, SUV 같은 대형 자동차와 큰 가전제품,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를 즐기다 보니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생태발자국은 가난한 나라들보다는 선진국에서 먼저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줄여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OECD 및 주요 국가별 생태발자국 현황>



전세계 생태발자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구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